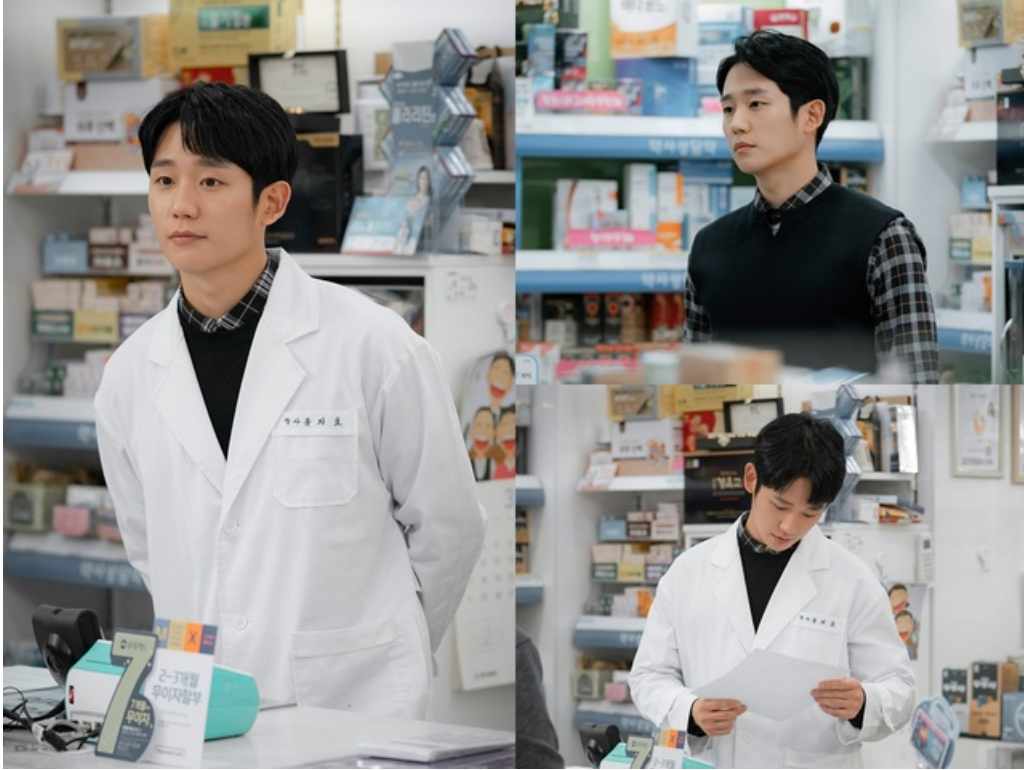


정해인, 따뜻하고 강직한 약사... '봄밤'

등록 2019.04.11 09:39:50



정해인

【서울=뉴시스】최지윤 기자 = 탤런트 정해인(31)이 한층 더 깊어진 감성 연기를 선보인다.

MBC TV 새 수목극 '봄밤' 측이 11일 공개한 첫 스틸컷에서 정해인은 약사 '유지호'로 변신한 모습이다. 흰 가운데 셔츠와 니트로 따뜻하면서 강직한 남자의 면모를 드러냈다.

정해인이 맡은 유지호는 부모 속 한 번 켜이지 않고 바르게 자란 인물이다. 다정다감하고 사려 깊지만 끌리는 것에 주저 없이 직진한다. 지역 도서관 사서 '이정인' 역의 한지민(37)과 로맨스로 시청자들을 설레게 할 전망이다.

'봄밤'은 잔잔한 일상에 스며든 사랑으로 감정의 파동을 겪는 남녀의 이야기다. 운명적 로맨스가 아닌 진짜 사랑 그 자체에 귀 기울이며 잊고 지내던 삶의 특별한 감정을 깨운다. 지난해 드라마 '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'로 신드롬을 일으킨 안판석 PD와 김은 작가가 뭉쳤다.

다음달 첫 방송.

plain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